





尾瓣花 图七

꽃 욕망: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면서 세상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녹색의 생물은 세상을 점령하였으며,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식물의 생존본능과 번식본능은 꽃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세상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꽃의 진화는 이러한 식물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어 스스럼없이 드러낸 생식기를 통해 화려하고 정교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곤충과 동물들은 꽃의 유혹에 눈이 멀고, 그들의 번식을 위해 서슴지 않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면서, 인간은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신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술과 장식의 끊임없는 소재로 만들어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신구 욕망: 꾸밈의 대표적인 도구인 장신구는 ‘욕망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권력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공공연하게 대표하였습니다. 현대장신구는 이러한 노골적인 욕망의 표현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반항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표현 형식에 도전하고, 오랜 시간 장신구의 전통적인 재료였던 귀금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한 현대장신구 속에는 또 다른 욕망의 세계가 자리하였습니다. 장신구 기존의 의미들을 부정하면서, 작가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 그리고 자신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부터 분리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현대장신구는 새로운 장신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장신구의 생존의 욕망과 번식의 욕망은 많은 장신구작가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욕망하는 꽃: 작고 함축적인 장신구는 매우 상징적인 사물입니다.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던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식과 함께 다분히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작자보다는 착용자 우선의 의도에서, 현대장신구는 제작자 우선의 표현으로 넘어와 작가의 의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과 소통은 현대장신구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다양성과 독창성은 작가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대중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소재인 꽃을 아직은 낯선 현대장신구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 소통의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전통 소재이며 장식 속성이 강한 어쩌면 현대장신구 정신과 대립하는 꽃은 또 다른 형상으로, 또 다른 의미로 작가들의 상상을 거쳐, 작가의 의도가 숨은 꽃은 낯설어지고 장신구는 장식과 함께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함에 현혹되어 미처 다 살피지 못한 꽃들의 세상은 현대장신구와 무엇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이동춘

밤의 시간, 꽃에 숨다

오랫동안 나는 완전히 텅 비워진 백지의 시간을 꿈꾸어왔다. 돌이켜보면 살면서 늘 그런 시간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가득 채워진 시간 말이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때론 시간을 허송해도 괜찮은, 그 어떤 조바심도 없는 만족스러운 시간을 꿈꾼다. 이는 소설 속 등장인물처럼 드라마틱 하지 못한 지루한 내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만히 놓아주질 않는 일상에 대한 일종의 불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원치 않았던 사건과 인물에게 받는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고, 에너지를 집중하여 폭발하거나 삭히기 적당한 혼자만의 시간으로 밤이 떠올랐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하는 꽃' 작업은 내게 시의적절했고 밤의 시간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되었다.

시작부터 그리 집요한 접근은 아니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포개어진 꽃잎 안에서 편안히 잠을 청하는 달콤한 상상으로부터 작업은 시작한다. 그러나 곧이어 자유를 잃은 공간, 만들어진 정원에서 관계에 불안을 느낀 내가 꽃을 덮으며 자신을 숨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어여쁜 꽃, 혹은 사그라져가는 슬픈 꽃 뒤에 존재의 욕망을 숨긴 채로 오래도록 숨어 있는 모습, 그것은 내밀한 고백과도 같은, 화내지 못하는 화난 꽃이다.

깨어 있어도 잠이 들어도 허기진 밤에 화난 꽃을 만나려면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야만 했다. 현실의 표면을 읽어내며 일상에 가려진 숨겨진 욕망, 몸과 마음을 구속했던 것들과 다시 대면해야 했다. 현실로 시각화된 기억들은 마치 비를 맞은 듯 조금은 서늘하고 추운 것들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혼란을 거둬하며 떠도는

영혼을 붙들어 얹히듯 손을 움직여 만들기에 집중해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완전한 상상은 반복되는 손짓으로 잠시 평안을 찾고 조금증과 불안은 습관처럼 가지를 뺏어 장식을 달다가 이내 내쳐지기를 반복했다. 무더진 영혼과 손 끝에서 결국 떨겨져 나온 것들에게 어색한 시선을 둔다. 그리고 확신에 차지 못한 채로 그 어린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완성된 결과물은 중간 제목으로 이름 붙인 '꽃에 숨다' 그대로인 듯 보였다. 오히려 덤덤했다. 어쩌면 제목 그대로의 모습이 긴장감을 잃은 듯 보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물화를 대하듯이, 대담한 분출 하나 없이도 그저 담담하게 그것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하여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에드워드 호퍼'의 'A Woman in the sun'을 보면서 그림 속 그녀의 심상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듯이, 내가 그 공간 속 여인이 되듯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내심 그 느낌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드러낼 수 없는 삶의 흔적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작업을 하면서 점점 그 대상에게 근접해 간다.

이 과정이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 힘겨움에 또는 조바심에 빨리 끝을 내려 하지는 말아야겠다.

그 짧은 밤의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밤의 시간은 뒤늦은 나의 선택, 그래도 작업 그 자체로 즐거운 숨을 곳이 되기 때문이다.

-강연성





정말 이상한 것은 그들을 둘러싼 나무와 다른 것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아무것도 제칠 수 없는 것 같았다.

'모두 다 우리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워진 엘리스는 생각했다. 여왕은 엘리스의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더 빨리! 다른 생각 말아!'라고 소리쳤다.

앨리스는 왜 달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앨리스는 다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점점 숨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은 여전히 '빨리 더 빨리'라고 외치며 앨리스를 질질 끌다시피하며 달려갔다.

“거의 다 왔나요?”

이윽고 앨리스가 겨우 헐떡거리며 말했다.

“거의 다 왔어.”

여왕이 말했다.

“아니 십분 전에 지나쳤어, 더 빨리!”

그리고 얼마 동안 묵묵히 달리기만 했다. 바람이 앨리스의 귓전에서 윙윙거렸다.

앨리스는 바람에 머리 가죽이 다 벗겨져 날아갈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왕이 소리쳤다.

“빨리 더 빨리!”

이젠 너무나 빨리 달리는 바람에 그들은 발이 거의 지면에 대지도 않고 허공을 미끄러지듯이 활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앨리스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갑자기 그들은 멈췄다.

앨리스는 숨이 차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끼며 땅바닥에 주저 앉았다. 여왕은 앨리스를 나무에 기대어 세우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제 조금 쉬어라”

앨리스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계속 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여왕이 말했다.

“어떻게 줄 알았는데?”

“저, 우리나라에서는”

앨리스가 여전히 약간 숨차 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달렸던 것 같이 그렇게 빠르게 오랫동안 달리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참 느린 나라구나”

여왕이 말했다.

“여기에서는 보다시피, 계속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달려야 해.

만일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것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여기 이대로 있는게 좋아요. 너무 덥고 목마르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알겠다”

여왕이 맘 좋게 말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과자 하나 먹을까?”

앨리스는 아니오 하고 말하는 것이 예의 바른 일이 되지 못 할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 집어서 꼭 참고 먹었다.

그것은 아주 텅텅했다. 앨리스는 자기 일생에 이렇게 목이 막혀 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카롤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루이스 캐럴, 번역 손영미, 서공사—

이 이야기에서 "붉은 여왕 효과"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1973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진화학자 리 반-베일런은 생물종들 간의 진화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종만이 생태계에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야말로 치열하다. 다음 세대에 우수한 종자를 더 멀리까지 퍼뜨리기 위해 일개 작은 꽃들은 향기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녀들의 마지막 꽃망울이 고개를 꺾어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어지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번식을 욕망한다. 꽃잎에 붙은 솜털 하나까지도 전략의 일부분이요, 그들의 욕망을 실어 나를 곤충까지도 섬세히 선택하고야 마는 그녀들은 심지어 그 일생이 목적을 이루었는지, 그저 바람 되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버린다. 그것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그것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더 좋은 종을 가능한 많이 퍼뜨리는 것이 그녀들이 가지고 태어난 숙명이라 하여도,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작인걸까.

때론 제대로 꽃피우기 전부터 누군가의 식탁 위에, 어떤 이의 빛 바랜 사랑 고백에 희생되거나 척박한 땅의 돌부리 위에 떨어져 그 원시로부터 내려오는 끝없는 욕망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꽃들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그 꽃이 제 할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오죽 아름다워 어떤 이의 다하지 못한 고백을 대신할 수 있었으며, 소박한 식탁의 일상을 가슴 설레게 할 수 있었겠는가. 눈 앞에 존재하고 있는 극단의 아름다움을 믿을 수 없어 손톱으로 짓이겨 보아야 인정하게 되는 그 화려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꽃 한 송이가, 오직 한 송이로 끝나는 삶이 되어 버린다 해도,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뒤쳐져버린 삶이 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히 멀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저 인생에서 그녀 자신이 붉은 여왕이 되어 자신만의 나라에서 살았다 해도 그것으로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문춘선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그림자에 맺힌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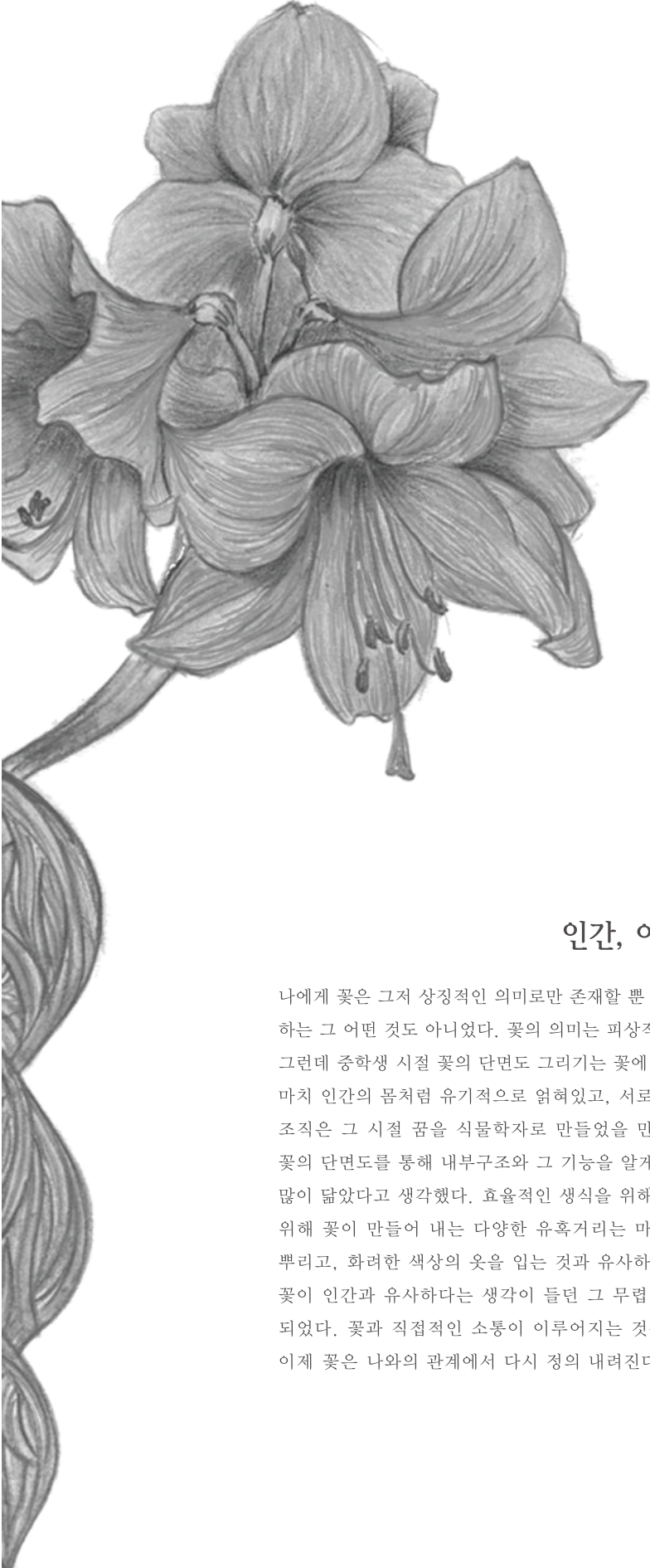
식물의 생식기관인 꽃은 번식 본능이 환경의 극복을 통해 진화한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더욱 화려한 색과 향기를 품고 달콤해졌으며, 땅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피어나 곤충뿐만 아니라 인간을 유혹한다. 또한 생명의 재생과 순환의 의미와 같은 자연의 힘을 드러내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욕망은 인간 내면에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정서이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반응하며,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이다. 이러한 욕망의 무의식적인 반응으로부터 작가는 무한한 창작 의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며, 욕망이 표출되는 작업의 과정에서 자아를 의식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의식의 정서를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식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그림자이다.’

- 분석심리학, 칼 구스타프 융 Carl Gustav Jung

빛에 의해 상이 드리워진 그림자는 존재를 입증한다. 또한 그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내면이 존재하며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그림자는 주체인 ‘나’의 무의식, 즉 욕망이 투영되는 공간이며 물리적으로는 나의 작업,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꽃과 식물에서 뻗어 나온 윤곽만이 존재하는 짙은 공간은 재료의 표면 위에 그려지고, 재료는 그 물성으로 형태 즉 실체를 만들어 낸다. 산화되어 거뭇한 금속이 오려지고, 잘려 나와 3차원 공간에 피어나는 과정이다. 고요하고 얇은 꽃 사이로 맺히는 욕망은 타오르듯 붉고, 때로는 달빛처럼 차분하며, 손에 잡히지 않을 듯 투명하다. -정준원



인간, 여성, 어머니 그리고 꽃

나에게 꽃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꽃의 의미는 피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학생 시절 꽃의 단면도 그리기는 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마치 인간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은 그 시절 꿈을 식물학자로 만들었을 만큼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꽃의 단면도를 통해 내부구조와 그 기능을 알게 되면서, 꽃의 생존 방식이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 효율적인 생식을 위해 그리고 생식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꽃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유혹거리는 마치 인간이 외형을 가꾸고, 향수를 뿌리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는 것과 유사하다.

꽃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 무렵 이후, 나는 꽃을 인간처럼 대하게 되었다. 꽃과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입은 가능했다. 이제 꽃은 나와서의 관계에서 다시 정의 내려진다.

나는 꽃이 아름답지 않다. 화려한 색상과 형태, 매혹적인 향기는 뚜렷한 목적을 향한 기능에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다. 그 목적은 바로 번식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식기는 은밀하게 감추어져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꽃은 자신의 생식기를 훤히 드러낸 채 번식의 욕구를 여과 없이 표출한다. 물론 자연계에게 이러한 생존을 향한 이기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 비친 꽃의 노골적인 이기성selfish-interest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지 않다.

나는 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꽃에게서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심기를 남성들에게서도 종종 느낀다. 꽃처럼 직접적으로 생식기를 드러내 번식을 향한 욕구를 표출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행동양식은 꽃과 유사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얼마 전 길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의 아저씨가 그 앞을 지나가는 여고생들의 다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일지라도 심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꽃이 불편하다.

나는 꽃이 밉다. 남성과 여성의 번식에 관한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남성은 자손의 개체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태어난 자손을 충실히 양육하는 것에 번식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번식에 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갈등 속으로 대치시킨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하는 입장 중에서 무엇이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족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남성들의 성적욕구는 꽃의 그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꽃이 밉다.

수정을 끝낸 꽃은 꽃잎을 떨구고 그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은 수정된 씨앗을 키우기 위해 온전히 쓰인다. 꽃의 모습은 추하게 변해가고 이전의 화려한 이기성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꽃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감정의 동요를 일으킨다.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판이하게 변한 모습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본능을 동시에 본다. 여전히 꽃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혹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생물학적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면 그 속에 꽃이 보인다.

-조민정

수꽃술의 욕망

꽃은 예부터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단순히 그것이 가지는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가져왔다. 자연의 일부로서, 식물의 생식과 번식을 위해 진화된 꽃의 색과 형태는 그것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인간이 가진 욕망을 표현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소재가 되었다. 꽃의 황홀한 색과 형태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는 흉내 낼 수 없는 복잡한 조직과 구조는 인간의 장식과 육구와 치장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되었다. 꽃의 형태는 오래전부터 장신구의 보편적인 모티브가 되어왔음은 물론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변을 둘러보면 벽지나 옷감 등에서 패턴화된 무늬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치밀함이 사라진 꽃의 이미지에는 오직 장식을 위한 다섯 장의 꽃잎과 우아한 꽃받침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재생산된 꽃의 이미지는 그가 가진 생명력을 잃고 오직 장식을 위한 미적 특성만이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있다. 꽃의 생물학적 정의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속씨식물의 생식기관이다. 특히 꽃에서 수술은 생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은 생식세포인 꽃가루를 만드는 장소로서 꽃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꽃을 이루는 다른 요소들을 제외한 수술만으로 이루어진 꽃을 떠올려 본다. 과장된 수술의 모양새는 벽면의 한구석을 장식하는 꽃무늬가 아닌, 여성의 신체 일부를 연상시킨다. 꽃이 가지는 생식과 번식의 이미지를 수술의 형태를 확대하여 표현하였다. 장식을 위한 꽃에게 중요시되는 잎의 형태와 색은 제거하고, 꽃수술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장식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가 가지는 성적 이미지 sexual-ity를 수술의 형태적 특성과 여성의 몸을 결합시켜 표현하였다. -한주희



환각의 날개

늪은 선녀를 본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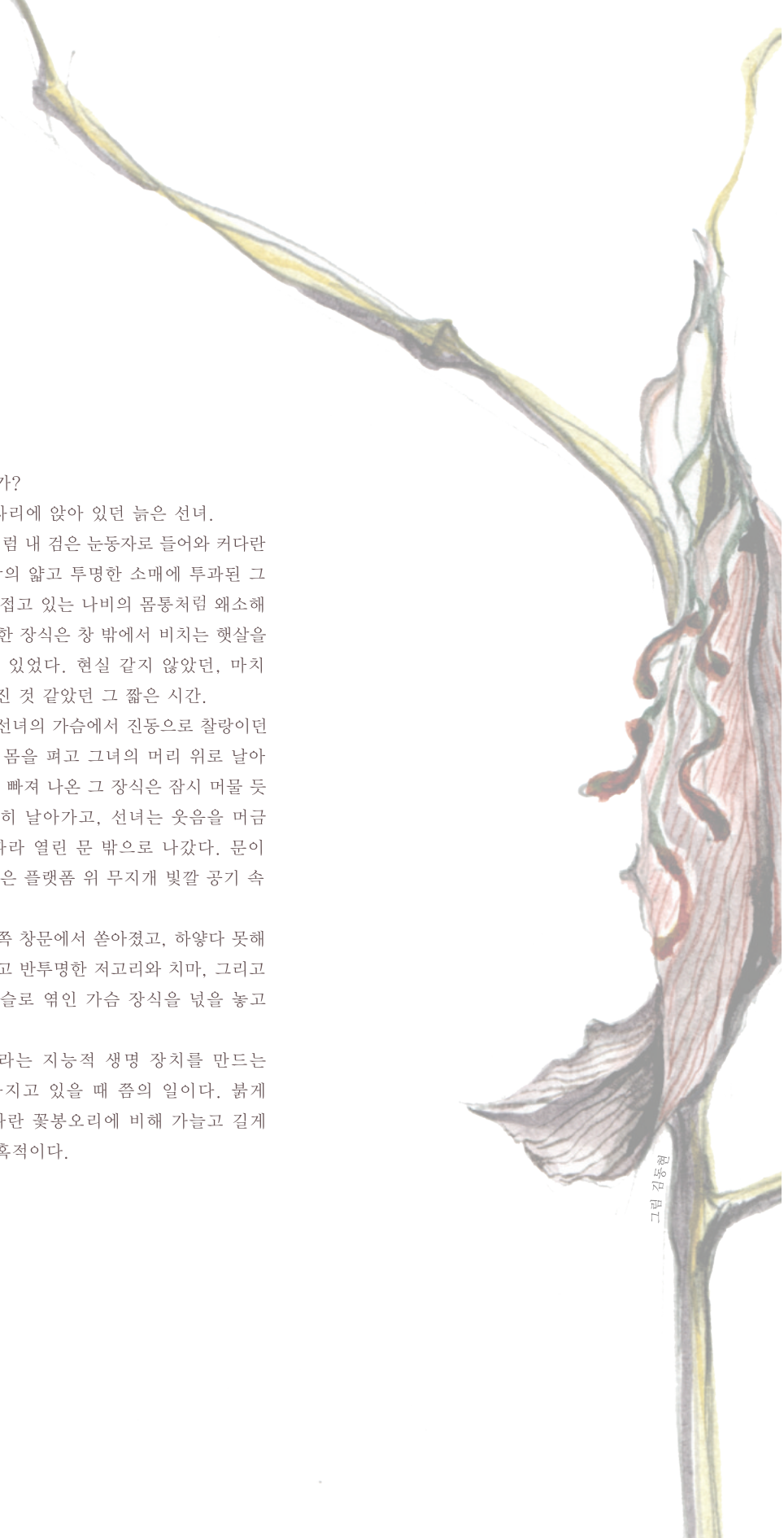
어느 아침, 지하철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늪은 선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환영처럼 내 검은 눈동자로 들어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하얀 적삼의 얇고 투명한 소매에 투과된 그녀의 몸은 커다란 날개를 접고 있는 나비의 몸통처럼 왜소해 보였다. 가슴에 새겨진 듯한 장식은 창 밖에서 비치는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현실 같지 않았던, 마치 비현실의 공간 속에 던져진 것 같았던 그 짧은 시간.

미동없이 앉아 있던 늪은 선녀의 가슴에서 진동으로 찰랑이던 그것은 서서히 숨을 쉬듯 몸을 펴고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 올랐다. 3차원의 공간으로 빠져 나온 그 장식은 잠시 머물 듯하다가 열린 문으로 천천히 날아가고, 선녀는 웃음을 머금으며 천천히 그 장식을 따라 열린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그녀와 작은 장식은 플랫폼 위 무지개 빛깔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아침 햇살은 그녀의 등 뒤쪽 창문에서 쏟아졌고, 하얗다 못해 투명하게 비치던 얼굴, 얇고 반투명한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현란한 색의 스팽글과 구슬로 엮인 가슴 장식을 넋을 놓고 바라 보았다.

식물의 독, 특히 아편이라는 지능적 생명 장치를 만드는 양귀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썸의 일이다. 붉게 물든 반투명한 꽃잎, 커다란 꽃봉오리에 비해 가늘고 길게 뻗은 줄기는 섬세하고 매혹적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진 자리에 치명적인 독을 품는다. 아편opium이다. 그 물질은 봉인되어 있던 감각을 깨우고 환상의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무의식의 터널을 지나 환각의 문이 열리면 의식 세계의 사물은 프리즘에 의해 사방으로 분산되는 가벼운 존재로 전락한다. 다른 세계에서 비행하여 분주한 아침 지하철 안에 앉아있는 커다란 나비. 마치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향연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비의 날개 위에 떨어진 듯 아름답고 신비로워 그녀는 내게 더욱 몽환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재료를 연상해 보았다. 투명 혹은 반투명한 재질이며 부드럽고 매끄럽게 느껴지는 질감을 표현하기에 비닐 소재가 가장 적합하였다. 그 위에 다채로운 색과 무늬를 입히기 위해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주로 사용한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예기치 못한 아크릴 물감 무늬를 전사해 보았다. 그리고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물감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고 전사하기를 수 차례 반복했다. 살포시 접고 있는 날개의 모습을 떠올리며 색이 입혀진 비닐을 자르고 말거나 겹치면서 가벼운 깃털을 포개어 놓은 형태로 만들어갔다. -박은주

a magnified flower

디펜딩 챔피언 defending champion

꽃은 정적이고 수동적이며 때론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마치 바람, 물, 햇빛처럼.

하지만 식량의 세계사에서 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꽃이 열매를 잉태하고 씨가 되어 다시 꽃을 틔우는 순환의 고리는 지구를 포용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

마치 바람, 물, 햇빛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너무 작거나 혹은 크기 때문이다. 공기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모른채로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길가에 핀 들꽃은 풍경의 일부로 압축되어 공기처럼 소비된다. 너무 작아서일까?

불행히도 나는 꽃을 즐길 줄 모른다. 꽃의 다음 단계인 열매라면 모를까. 알레르기 때문인지 다가가서 만지기가 두렵다. 화려한 색상과 형태를 가진데다가 움직이기까지 하는 꽃은 식물의 한 부분이지만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느껴진다. 생태계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 하는 식물계의 번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니 경이롭고 동시에 두렵다. 자연과의 공존을 잊은 우리는 그들에게 반감지 않은 손님일 것이기 때문이다. 십년 전 상영했던, 지구를 공격하는 외계인에 관한 어느 영화처럼 인류도 꽃에게 버림받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영화 속 주인공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외계인들과 몸싸움을 한다. 하지만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외계인들은 하나 둘씩 산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은 식물들이 그들의 자정 능력에 있었다. 지구의 식물들이 외계 생명체를 침입자로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꽃가루로 지구를 정화시킨 것이다.

우주 전쟁의 최종 승리를 거머쥔 이는 첨단 무기도, 괴생명체도, 주인공도 아닌 거리의 들꽃이었다. 당시에 약간 시시한 결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나는 이 영화를 세 번 더 봤다.





커다란 꽃 a magnified flower

전시 주제인 '욕망하는 꽃'은 식물이 내포하는 수 많은 상징과 함께 꽃 자체의 외형적인 특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로서, 꽃을 지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상과 친밀해지기는 다소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낯선 대상과의 조우는 종종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 꽃을 들고 관찰하는 일이었다. 학교 강가에 핀 희고 큼지막한 꽃을 일정 시간마다 무심히 바라본 지 사흘이 되었을 무렵 꽃이 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평면에 가깝게 피어있던 잎날들은 몸을 웅크려 완벽한 입방체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형태에서 가장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동물이 낮에는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드는 것처럼, 꽃은 밤이 되면 망울 속에서 살을 포갠 채로 꿈을 꾸는 듯하다. 문득 디펜딩 챔피언의 잠자리가 궁금하다.

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커진다. 하얀 꽃은 상당히 커서 안쪽의 구조를 살펴보기가 적합했다. 섬세한 색채 변화를 보이는 피부결과 구조적으로 짜여진 잎날들을 보다가 어느새 그 작은 공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아마도 미aesthetic라기 보다는 낯설음unfamiliarity에 대한 호감일 것이다. 여전히 꽃은 거대한 협곡만큼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꽃술 아래 위치한 검은 통로는 관다발로 이어져 뿌리에 내리고 그 끝은 다시 땅으로 이어져 있어 그 어둠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사방으로 뻗은 꽃잎은 시공간의 시작과 끝을 부정하듯 연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살갗의 화려함은 풀잎과는 달리 자극적이고 환상적이다. 꽃의 시간은 무한히 확장된 공간의 돌레를 돌다가 동그란 화석이 되고, 차가운 손은 오편려 살갗을 가린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잠든다. 태양색 꽃잎은 손에 닿으면 차가워지고 향기는 무저갱의 공포에서 피어 오른다. 계속해서 마주치는 모호한 대답dusty answer은 꽃에 관한 기억과 지금의 낯설음 사이의 층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느린 시간 안에서 촉각은 더욱 섬세해지고 이데아는 증발해 버렸다. 자꾸 머릿 속에서 망울 안쪽의 은밀한 공간이 맴돈다.

가까이 들여다본 꽃은 연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곳에 서서 나를 희롱하듯 바라보고 있다. 깊은 암흑과 무한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마비시키며, 그 차가운 피부는 역설적으로 뜨거운 정열을 담고 있다. 연약한 아름다움보다는 전략적이고 남성적이라는 말이 웅장함과 정교함을 동시에 가진 디펜딩 챔피언에게 더욱 어울린다.

장신구 작가의 언어는 곧 재료이다. 질료의 표면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기록되고, 이들은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은 다시 여러 덩어리들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기 위해 대열 속으로 숨는다. 주술적 행위를 닮은 일련의 작업과정은 꽃을 관찰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행동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 본유관념에서 나온 형태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짐작할 수 없다. 물론 심연의 길은 아득하고 불안하지만 그 덕분에 신비롭게 아름답다. 꽃과 가까우며 재료로서도 훌륭한 나무와 촉각의 유사성을 띄는 지우개 위에 덧입혀진 흔적들은 역사처럼 묵묵하게, 태양처럼 열렬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아름답게 피어있다. -환상덕



변신 metamorphosis

재료를 선택하고 형태를 연구하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 지를 탐구하는 것은 자아를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 시간 동안 내면 가장 깊은 곳과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마주하며 나를 알아간다. 유년시절을 더듬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낙서를 하며 보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보다 그 날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물, 자연물들을 왜곡시키고 우스꽝스럽게 조합하여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처럼 특정한 존재나 상황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일은 어린 시절 자아를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으며 물리적인 한계 또한 없다. ‘나’라는 객체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불가능의 장벽을 넘나든다. 또한 상상력은 아무리 채워도 또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 스스로 만든 공간 속에서 성공의 쾌감을 맛보기도 하고, 은밀한 욕망을 풀어헤치며 더 강렬한 자극을 꿈꾼다. 상상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더 발전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과 동식물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힘이다. 상상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욕망은 없을 것이며 인류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욕망하는 꽃’은 꽃 스스로 인간처럼 상상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의지를 갖춘, 즉 생각하는 존재이다. 만일 꽃이 욕망의 주체가 되어 인간처럼 사고하고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무엇을 바랄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 충매화의 경우 꽃가루 이동의 매개자로 곤충을 필요로 한다. 생존의 이유 중 하나인 번식이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셈이다. 꽃이 곤충의 운동 능력을 갖게 된다면 지금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번식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한편 꽃은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다가도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맥없이 꽃잎을 떨어뜨린다. 추운 겨울을 날 수 없는 그들에게 따뜻한 동물의 털은 선망의 대상일 것이다. 꽃에게 상상하는 힘이 있다면 이처럼 자신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을 닮고 싶어하지 않을까. 나는 곤충의 껍질 같은 단단한 몸과 짐승의 털을 가지고 있어 비바람에도 살아남으며, 외부의 공격에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꽃을 상상해 본다. 견고하고 윤이 나는 질감으로 꽃의 덩어리를 표현했고, 몸체와 연결된 금속 부분들은 다른 생명체의 요소를 연상시키며 공상적인 꽃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꽃은 상상을 통해 현실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몸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꽃의 삶에 대한 욕망이자 미지의 세계를 향한 나의 욕망이기도 하다. -김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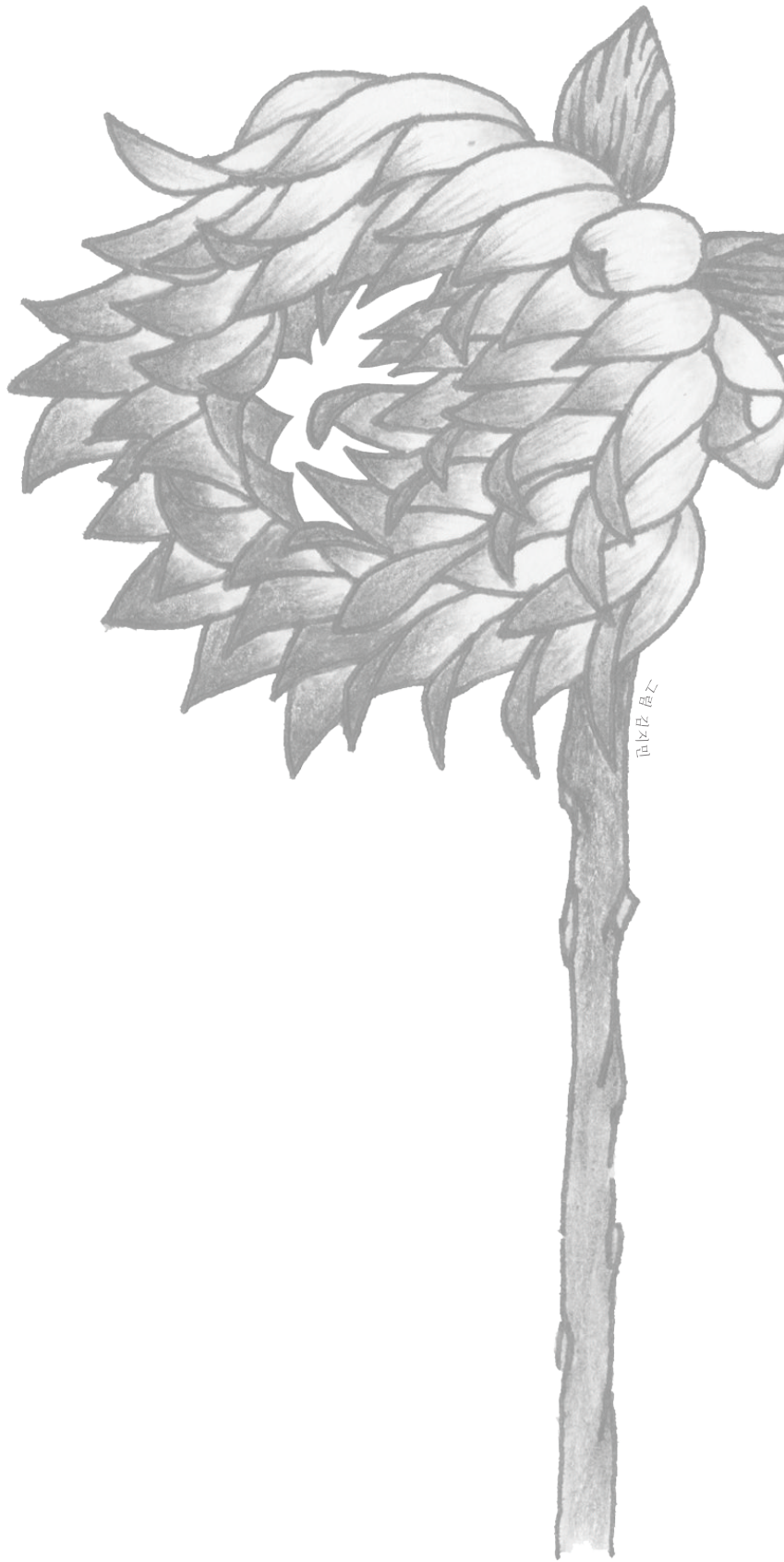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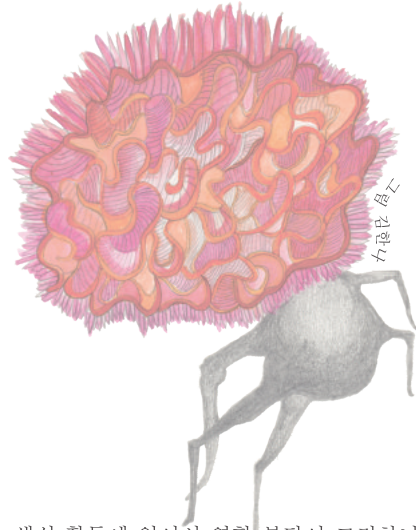
그림 김지민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

씨앗을 심고, 새싹을 피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어나고, 꽃봉오리가 열리고 나면 마침내 꽃을 만날 수 있다. 우선 내 손으로 식물을 키워보기로 하고 꽃집에 가서 작은 식물 하나를 샀다. 일주일에만 한 번씩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면 더욱 좋다고 꽃집 주인이 말해 주었다. 잘 키운다면 꽃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꽃이 핀다는 말에 더욱 잘 키워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식물을 데리고 왔다. 길을 지나가다 보이는 잡초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들을 상상하며 이 식물 역시 어렵지 않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3주 정도는 햇볕을 받으며 잘 자랐으나 얼마가지 않아 시들기 시작했다. 한번 시들어버린 식물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 채 두 달을 못 넘기고 죽어버렸다. 생명이 살지 못할 것 같은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은 정말 대단하다. 아스팔트, 바위, 시멘트벽 틈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뿌리 내려 싹을 틔우고, 먼지처럼 쌓인 한 뼉의 흙에 의지하여 꽃을 피워내는 잡초는 열악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기에 크고 화려한 관상용 꽃보다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작업은 사랑을 향한 나의 갈망을 욕망하는 꽃에 비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해 분출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김혜원



적극적 진화

사람들은 흔히 여성과 남성을 꽃과 나비에 빗대어 말한다. 생식 활동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그러하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나비가 날아와 앉아주길 기다리는 꽃이라니, 다분히 성차별적인 관점이 아닐 수 없다. 꽃에 비유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선택권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느낌이 강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지만, 워낙 일반화되어 있는 속설이다보니 나 역시도 여성과 꽃을 일치시켜 사고하게 된다. 여성의 위치가 남성과 대등해졌다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은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곤 한다. 선택받기 위해 치장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여성의 미덕이라 여기는 사회 통념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겠지만, 여성 스스로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낮추기도 하고 혹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치장의 근원적 욕구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여 남들에게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다. 꽃의 화려한 치장은 생존이라는 본능과 직결되어 있지만 인간의 경우는 생존 문제와는 별개로 그 시대의 미적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상처를 입혀 왔다. 그래서일까? 나는 꽃의 화려한 색에 별다른 감흥이 없다. 오히려 그 색이 더 화려하고 분명할수록 거부감이 든다. 자연스럽게 않고 가짜 같은 느낌이랄까? 성별을 떠나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걸치레에만 신경쓰는 못난 사람들을 보는 듯하다.

꽃에 대한 인식은 화려한 꽃잎에만 치중되어 있지만, 꽃잎이 꽃의 전부는 아니다. 꽃에는 잎 말고도 꽃받침과 꽃잎, 암술과 수술도 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향기를 뿜어 상대를 현혹시키는 꽃잎과 함께 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최적의 상태로 자신을 스스로 진화시켜 왔다. 꽃가루를 놓치지 않으려는 암술의 머리는 수술의 것보다 비대하다. 꽃가루를 붙잡기 위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촘촘한 빗살이나 주름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기도 하고 꽃가루의 원활한 접착과 이동을 위해 점액질을 분비하기도 한다. 암꽃을 찾아 떠도는 수꽃의 꽃가루에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날개가 달린 경우도 있다. 소나무의 암꽃은 바람을 타고 오르는 꽃가루를 받기 쉽게 가지 맨 끝에 올라앉아 있으며 옥수수의 풍성한 수염 역시 꽃가루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한 형태의 진화는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대상이 텃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정당하다. 꽃잎의 화려함을 배제하고 목적에 충실한 형태와 기능이 드러난 꽃들은 적극적이다 못해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수분을 위해 그물과 촉수로 사냥을 하고 움켜쥐고 삼키는 행위에 서슴없다. 주름진 몸통이 가 훗물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목적을 위해 진화한 적극적인 꽃이다. -최지은



유혹의 기술

식물은 자연이 주는 기본적인 조건에 따라 그들의 삶을 펼쳐나간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힘. 그러한 까닭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형으로 나는 식물을 바라보고 있다. 작업을 통해 식물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점차 식물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여 뿌리, 잎, 꽃, 암술, 수술 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라보니 아름답고 순수하게만 보이던 식물의 삶 속에서 경쟁과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느껴진다.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식물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식물을 벗어나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식물이 진화를 거듭하여 지구를 뒤덮고 산소를 내뿜으며 지구의 어머니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식물의 거침없는 욕망 때문일 것이다. 생존과 번식에 대한 식물의 욕망은 꽃으로 응집된다. 꽃은 특유의 향과 색으로 새나 벌, 나비 등을 끌어들이며 수분을 돕게 하고 꿀과 씨앗, 열매 등을 발달시켜 포유류를 번식에 이용하기도 한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효과적인 종족번식의 방법으로, 동물과 인간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과 순수함의 측면으로 해석되던 꽃에 대해 한 발짝 시각을 옮겨 유혹과 술책으로 단정지으려 하니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림 강연정

그만큼 나는 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환희의 감상에 젖어 유혹과 계략이라는 다소 낯선 모습을 믿고 싶지 않다. 그것은 어쩌면 그 말에 담긴 고상하지 않은 기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꽃은 인간을, 동물을 유혹하고 현혹시킨다. 꽃은 나도 모르게 아름다움의 감탄사를 내뱉게 하며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수분 매개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진화한 꽃의 색이나 향에 인간이 그토록 매료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꽃이 가진 시각적인 균형미를 꼽을 수 있다. 좌우대칭과 황금비율, 어떻게 잘라 보아도 균형을 잃지 않는 질서에 의한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시각적인 균형미만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살아있는 꽃이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잘 만들어진 조화는 진짜 꽃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전부 재현해 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꽃의 특별한 아름다움은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품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그 극도로 전략적인 유혹의 기술에 있다.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화하여 현재의 살아 숨쉬는 지구를 일궈낸 끈질긴 특별함으로 인해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것은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된다. 결국 식물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식물은 꽃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고 나의 마음을 얻었다.

난 오늘도 길가에서 꽃을 꺾으려는 어린 아이를 꾸짖으며 꽃의 편에 선다. -박정혜



꽃처럼 보이는 것들

분명 꽃은 아닌데 ‘꽃처럼’ 보이는 것들... 주변에는 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꽃을 떠올리는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공통된 특성은 무엇일까.

폭죽이 터지는 모양, 얇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펼쳐진 형태, 만화경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 눈의 결정, 빨강과 초록의 색 조합, 레이스, 리본, 선풍기, 팝콘 등등 우리 주변에는 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존재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반사되어 퍼져나가는 방사 형태로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만화경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방사 형태의 매력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만화경에 무엇을 넣든지 내부 거울에 서로 반사되어 꽃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가끔 꽃이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의 야심을 만화경을 통해 몰래 들여다 보는 상상을 해본다. 꽃이 피는 것을 ‘씨앗이 남 몰래 품고 있던 시뻘건 속내를 참지 못해 어느 순간 꽃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 보면, 각각의 사물 또는 생물들의 감춰진 욕망을 한 번쯤 꺼내어 들춰내어 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한편, 꽃은 미의 상징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람은 꽃처럼 보이는 요소를 사물과 생물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사진 속의 한 부분을 방사 형태로 나열해가며 그 안에서 꽃의 이미지를 찾아보았다. 버려진 밧줄, 비닐봉투 등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꽃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였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형태, 색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꽃이 만개하고 금방 시들어버리기에 그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진다. 반면 비닐로 만들어진 꽃은 마치 가짜 꽃, 즉 ‘조화’가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처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대변한다.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진짜 꽃보다 더 욕망 가득한 무언가를 가지고, 만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찮은 비닐봉투가 장신구가 된다는 것이 비닐봉투가 가지고 있는 야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상상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찮은 모든 것들도 꽃이 될 수 있다. -심진아



그림 김지민